

공군, 한국공항공사와 콘퍼런스



공군은 10월8일 공군호텔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제7회 공항 건설 및 유지관리 연구 개발(R&D)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공군과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설, 유지 관리 분야 민·군 정보교류를 통해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1년부터 콘퍼런스를 개최해오고

있다. '미래 공항 건설·운영 및 스마트 포장관리'라는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항공·건설 업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공군학생군사학교 출범

공군 학군단을 통합운영할 '공군학생군사학교'가 창설됐다.

공군교육사령부는 1월 6일 손석락(중장) 사령관 주관으로 행사를 열고 공군학생군사학교 창설을 대내외에 알렸다.

공군학생군사학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 대학 공군 학군단을 하나로 통합운영해, 공군 학군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군단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창설됐다.

공군 학군단은 지난해 기준 항공대, 한



서대, 교통대 등 8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올해 경운대, 청주대, 백석대, 한경대 4개 대학에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다.//

제20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공군은 11월 19일 공군호텔에서 '항공우주시대, 항공우주력 도약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20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는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개회사, 이근영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장 환영사,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부승찬 국방위원·이완규 법제처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기조발표에서는 김한택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우주항공청 개청, 국방 우주 분야에서의 공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제언'을 설명했다.



이어서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계속돼 △ 우주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일반 국제법 및 우주법상 쟁점(강석대 변호사)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활용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조홍제 박사)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공공·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안영신 변호사) 등 미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한 논의가 전개됐다.//

18전비, 351고지 전투지원작전 기념식



공군18전투비행단은 10월 25일 강릉통일공원에서 '351고지 전투지원작전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공군전우회 강릉지부, 18전비 정책발전자문위원, 18전비 장병 등 4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351고지 전투지원작전을 기념하고, 전투 중 순직한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했다.

351고지는 강원도 고성 인근 월비산 동쪽 2km 지점에 있다. 지리적·전술적 요충지였기에 반드시 고수해야 할 지역이었다.

351고지 전투지원작전은 고지 사수를 위한 대규모 한미연합 지·해·공 합동작전이다. 공군은 고지를 지키기 위해 1952년 10월 28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강릉기지 F-51D 전투기를 총 1538회 출격했다. 육군도 미 5공군·미 해군7함대와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그 결과 국군은 351고지를 지켜냈고, 38선 북쪽 설악산과 속초·거진-간성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F-15K 전투기, 서해상서 실사격

공군 F-15K 전투기가 서해 상공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 핵심 전력인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TAURUS)'를 발사했다.

타우러스는 약 400km를 날아가 서해상 사격장에 설치된 2층 건물 모형에 정확히 명중했다.

공군은 10월 8일과 10일 잇따라 실시한 타우러스 실사격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2차례 타우러스 사격을 공개하



며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타우러스 실사격은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이뤄진 이후 2번째다.//

2024 열린우주포럼 개최

공군은 11월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열린우주포럼'을 개최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황희 위원,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이 공동 주최하고 공군본부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다부처 우주전력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포럼에는 국내외 항공우주·미사일방어 분야 민·관·군·산·학·연 전문가와 미 우주군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김성훈 항우연 부원장과 박영득 천문연 원장이 환영사, 성 위원장과 황 위원,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이 축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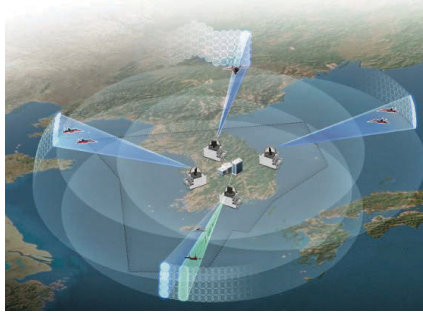
국산 장거리 레이다 개발 성공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1월18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장거리 레이다가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거리 레이다는 365일 24시간 한국방 공식별구역(KADIZ) 내 항공기의 탐지·추적이 가능한 장비다. 포착한 정보를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로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즉각적인 방공작전을 보장하는 영공방어의 핵심 무기체계다.

방사청은 2021년 12월 LIG넥스원과 체계개발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와 시제 제작을 거쳐 시험평가를 수행한 끝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장거리급 레이다를 자체 제작·생산하는 능



력을 가진 국가가 됐다.

방사청은 2025년 1월까지 국방규격 제정과 목록화를 완료하고 오는 2026년 양산 사업에 착수해 노후된 레이다를 교체할 계획이다.//

군 정찰위성 3호기 궤도 안착 성공

국방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은 12월21일 밤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오후 8시 34분경(현지시간 오전 3시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 약 51분 후 목표 궤도에 안착하고 약 2시간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독자적인 고성능 영상레이다인 합성개구레이다(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을 추가로 확보해 ‘한국형 3축 체계’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주관으로 위성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한다. 군 주관으로 진행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

11월 11일 오전 11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를 위해 희생·헌신한 유엔 참전용사가 묻힌 부산을 향해 세계인이 묵념을 올렸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이날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제18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은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티니의 제안에 따라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향해 유엔 참전국이 함께 1분간 묵념하자고 한 ‘부산을 향하여(턴 투워드 부산)’에서 시작됐다.

정부가 2020년 3월 유엔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11일을 법정기념일인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로 제정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행사에는 20개국에서 방한한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국내 참전용사, 주한 외교사절, 유엔사 장병,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형 사드’ L-SAM 독자개발 완료

‘한국형 사드(THAAD·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로 불리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가 순수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됐다.L-SAM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체계 중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의 핵심 전력으로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에 해당한다.

이번 개발 완료로 우리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압도적인 방어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는 11월29일 ADD 대전청사에서 L-SAM 개발 종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창설 72주년 기념식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10월8일 공군호텔에서 창설 7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손희원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장, 이화중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장, 향군 해외지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참전·친목단체 간담회와 예비역의 미래를 논의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향군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전투에 직접 참여하거나 후방에서 전투를 지



원하기 위해 부산에서 창설됐다.

현재 14개 시·도회, 223개 시·군·구회, 3070개 읍·면·동회, 24개 해외 지회를 갖춘 최대 예비역 안보단체로 발전했다.//

보훈부,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의 독립·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8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11월17일 국립대전현충원 무후(無後) 독립유공자 추모시설 ‘독립의 염원이 모이는 길’ 앞에서 거행됐다.

국가보훈부(보훈부)가 주관한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여는 공연, 국민의례, 순국선열 추념문 낭독, 독립유공자 이름 다시 부르



기(롤콜)와 후손 서명부 헌정,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헌정공연, 기념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충북 영동에 100병상 규모 보훈요양원 세운다

충청도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의 건강한 노후와 재활 지원을 위한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10월 14일 충북도청 본관 2층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정영철 영동군수 등이 참석했다. 보훈부는 올해 설계용역에 착수한 뒤 2026년 착공해 2027년 하반기 개원할 계획이다. 충북권 보훈요양원은 충북 영동군 회



동리 333 일원 5894㎡ 부지에 100병상 규모로 조성된다.//

6·25 전쟁 영웅 워커 장군 흉상 제막식

6·25전쟁당시 미8군 사령관으로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견인한 월턴 해리스 워커(Walton H. Walker)장군을 기념하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10월 2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워커 장군 전사지로 알려진 도봉동596-5번지에서 약200여미터 떨어진 도봉역2번 출구 맞은편 럭키아파트 옆 인도에서 워커 장군 흉상 및 기념공간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연석 도봉구청장, 로더릭 라프먼(Roderick Laghman)미8군 부사령관(준장)등이 참석했으며,미8군 군악대가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함께 연주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 깊게 했다.

워커 장군 기념공간은 가로13.8m,세로



3.65m규모로 조성됐으며, 워커 장군의 금빛 흉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장군의 연보가,오른쪽에는 6·25전쟁에서의 장군의 활약상이 기록돼있다. 가장 오른쪽에는 국군과 유엔군의 피로써 사수한 낙동강전선을 형상화한 ‘워커라인(Walker Line)’을 기억하다’라고 새긴 비석을 세워6.25전쟁 초기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공사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취임식 원인철 신임 회장 취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12월 19일 공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원인철 전 합참의장을 32차 총동창회장으로 선임했다.

원 신임 총동창회장은 1984년 공사 32기로 입관해 공군작전사령관, 합참차장, 공군

참모총장을 거쳐 제42대 합참의장을 역임했다.

원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모교의 발전과 정예 우주공군을 지향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공군의 발전을 위해 총동창회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며 “이를 위해 예비역과 현역 동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국방안보정책 연구활동 등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군ROTC장교회, 학군31기 임관 20주년기념행사

공군학군 31기 임관 20주년기념행사가 10월 22일 공군호텔에서 임석상관으로 공군교육사령관을 비롯하여 수도권 4개학교의 학군단장 등 공군교육의 주요 관계자와, 김석찬 공군ROTC장교회장(학군11기) 및 집행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11월 1일에는 제2차 세계대전 미공군전공기념관(경남 남해 위치)에서 열린 ‘제79주기 미공군 영령 추모식’을 주관했다.

그리고 12월 13일 학군17기 故 이상희 대위의 순직 33주기 추모식이 성남 시니어 산업혁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추모식에



는 김석찬 회장 등 임원진들이 참석하였으며,고 이상희 대위는 전투기 추락 중 민가를 피하기 위해 전투기와 함께 산화한 공군의 영웅이다.//

이영하 회원, 제24회 올해를 빛낸 인물대상 및 문학상 수상



분회 이영하 회원(예 중장, 공사22기, 전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장)이 10월 29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합 매일신문 및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물사연구원, 뉴스파일 및 교통교육복지연구원이 주관한 제24회

올해를 빛낸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예술·문학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12월12일에는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 주최 한국예총문학상을, 12월 21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문학그림샘문, 한용운문학이 주관하는 제4회 한용운문학상(시부문)을, 12월 28일에는 윤동주,한석봉 문학상을 각각 수상했다.//

안호원 회원, 대한민국 사회공헌상 수상



분회 안호원 회원이 12월 22일 글로벌명인대상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시상식에서 사회봉사공헌대상을 수상

했다. 안 회원은 각박한 사회를 정화시키는데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공군사랑회, 2024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

공군사랑회 (회장 서용길)는 11월 7일 KBS아트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4 (제1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수상자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공군사랑회는 20여년간 나라사랑, 공군사랑, 이웃사랑 및 안보를 위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공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공군학사장교회, 제15회 공군참모총장배 골프대회



공군학사장교회(회장 서영득)가 주최하고, 학사장교골프회(회장 송명성)가 주관한 ‘제15회 공군참모총장배 골프대회’가 약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19일 성남 체력단련장에서 개최됐다.

본 대회는 ‘순직조종사 유자녀 장학금 모금 및 1천만원 기부’를 위해 공군이 후원하는 대회로써, 공군학사장교 회원들을 포함한 대내외 많은 인사들의 후원과 협찬으로 이루어졌다.//

부서관(원우)회 부대위문 및 자체 골프대회

부서관전우회(회장 차주성)는 10월 18일 제16전투비행단, 10월 31일에는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위문금 각 100만원, 11월 19일에는 제7180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 150만원을 전달하고 영공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11월 26일 제17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에서 제8회 부서관전우회장배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김영식 회원 한국세무사회 감사패 받아

분회 김영식 회원 (예 중령, 공사12기)이 지난해 10월 한국세무사회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퇴임한 지역세무서장에게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김 회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영혜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4년간 성북지역 세무사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현재는 한국세무사회 공제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공군전공상유공자회, 세종대왕릉 참배



공군전공상유공자회(회장 박찬태)는 10월 31일 회원 및 가족 약 20명이 경기여주 소재 세종대왕릉(영릉)을 찾아 참배했다.

안보현장견학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미사일·우주 전쟁시대에 긴요한 융합과 통합!

권명국 (예 공군소장, 육사33기, 前 방공포병사령관)



세계 각국의 우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우주의 군사적 활용 범위가 미사일 공격으로 확대되는 등 우주전력은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모두 각군의 독자적인 우주전력 확보와 우주조직 구축을 위한 경쟁이 뜨거운 요즘, 불필요한 경쟁으로 노력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서 우주전력과 조직을 구축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우주 관련 작전 수행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와 '미사일 작전과 우주 작전을 분리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해서 할 것인가?'이다.

즉, 우주 전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작전개념(How to Fight)이기에 합동성이라는 명분 아래 자군(自軍)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경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우주 자산과 관련된 모든부대·기관이 통합되도록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우주 선진국들은 미사일의 고도화가 우주발사체, 위성 등의 개발로 이어져 우주에 대한 도전의 견인하고 있으며, 미사일 작전대상도 미사일에서 위성, 우주 쓰레기 등의 모든 우주물체까지 확장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미사일 작전과 우주 작전이 같은 영역 내에서 이루어짐을 인식하고 "지상에서 고도 100km 이상인 우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 즉 우주군(Space Force)을 2019년 육·해·공군, 해병대, 해양경비대에 이어 6번째 군종(軍種)으로 창설하여 우주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한 우리 군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상적 롤모델인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사일 작전의 완전성 추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미사일 방어와 미사일 공격을 담당하는 부대를 하나의 지휘 체계로 통합하여 가용 정보자산에서 획득된 첩보를 융합, 활용하고 추후 전력화 예정인 우주전력도 점진적으로 수용하여 통합된 우주 미사일 작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고 언급한 영국 사학자 에드워드 카

(Edward. H. Carr)의 말처럼 역사는 반복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좋은 역사의 반복은 환영할 일이지만 잘못된 역사의 반복은 경계하고 피해야 한다. 1991년 시행된 육군 방공포병의 불완전한 공군 전군(轉軍)은 3차원의 공중공간에서 활동하는 공중위협을 무력화시키는 방공전력의 통합운용을 곤란하게 하였고 지대공과 지대지미사일 전력을 이원화하는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전군(轉軍)의 결과로 육군에 단거리 방공전력과 지대지미사일 전력을 남겨둬야 따라 우리 군은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IAMD-Joint Integrated Air & Missile Defense) 작전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Kill Chain과 KAMD, KMPR의 3축 체계를 단일 지휘체계로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지금 우주 작전의 영역이 다시 논란의 장이 되고 있다. 현재 각 군은 우주 작전을 3군공통의 임무로 간주하여 공군은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이름으로, 육군은 '폐가수스 프로젝트'로, 해군은 '해군 우주력 발전업무 추진계획'으로 우주력 건설을 위한 로드맵을 따로따로 그려나가고 있기에 또 다시 자군(自軍) 중심의 잘못된 역사가 재현되려 하고 있다.

만약 육군이 미사일 작전을 주도했던 방공포병사령부를 전군(轉軍)시키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면, 우주조직의 구축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주전력의 최대사용자를 자처하는 육군은 미 육군 우주 및 미사일방어사령부의 예를 들어 이미 우주사령부를 별도의 조직으로 창설했을 것이다.

이제는 우주와 미사일을 하나의 팀으로 구성, 전력과 조직을 통합 운영할 때이다. '하늘로! 우주로!'를 꿈꿔왔던 공군에 미사일 방어를 주도하는 방공포병이 견재(健在)하기 때문에 우주는 방공포병 조직을 주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앞서간 사람과 역사에 길을 묻는다. 미 공군과 미 육군의 우주와 미사일 방어에 대한 역사와 교훈은 혼돈 속에 우주로의 길을 찾고 있는 우리 군에게 미사일과 우주로 하나로 통합해서 우주로 나아가 갈 것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미사일 작전과 우주 작전 요소를 통합하여 우주 미사일 전략사령부로 확대 창설함으로써 우주 미사일 통합작전의 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현대전에서 우주는 기회와 도전의 장(場)이다.//

상관없이 분리된 지구 건너편의 편린으로 인식한다. 다만 그러한 끔찍함이 미치지 않을 길 바라는 듯하다. 우리도 동족상잔의 6·25 전쟁을 겪었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엄청난 피해를 본 그 상처는 지금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러한 전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전쟁이 일어나면 무자비한 폭력이 일상화된다. 전쟁이 빚어낸 광기의 폭력사례를 접할 때마다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광기는 어디가 끝일까 생각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전쟁에 무관심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 참혹한 전쟁의 참상을 매 순간 바라보며 살아가는 데 번민하고 고뇌한다.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전투현장에서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 전쟁의 한 단면이다. 수많은 학자가 전쟁을 종식시키고자 그 원인을 찾고 예방책을 연구해 왔지만, 항상 전쟁은 일어났다. 그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란 결과 역시 늘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많은 학자가 전쟁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전쟁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전쟁이 주는 가혹한 교훈을 인류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결과는 지금보다 긍정적으로 변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해 본다. 전쟁은 일반적인 현상인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데, 왜 협력해 전쟁을 해결할 수 없을까?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당신은

전쟁에 관심 없을지 몰라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 있다'는 유명한 교훈을 남겼다. 우리 모두 전쟁을 혐오하고, 이 땅에 그러한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하지만 전쟁은 지구 어디선가 계속되고 있다. 인류가 전쟁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전쟁은 우리 삶에 더욱 혹독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전쟁이 주는 교훈과 질문, 그 해결책은 '국제정치학'과 '군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다. 전쟁을 막지 못한다면, 이를 줄이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위대한 항공전략가 존 와든은 "전쟁은 전쟁이 닿는 모든 사람과 민족에게 영향을 미친다. 전쟁의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전쟁을 종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인류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전쟁을 이해해야 한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전쟁을 줄이거나 억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인류는 전쟁을 끝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끝낼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가 같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한다. 모두 함께해야만 해낼 수 있다.//

나답게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길

황태인 (예 중위, 학사 70기, (주)토브넷 회장)



을사년(乙巳年) 새 해를 맞이하면서 각자는 새로운 각오를 하거나 현인들에게 올 한 해 어떻게 살아 갈 것인지를 묻게 된다.

필자에게도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하고 물어올 때면 나는 '민들레처럼 살아가라'고 한다. 민들레는 약용식물 가운데 우리가 정성 들여 가꾸지 않아도 생명력이 워낙 강해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는 상징으로 여겨지는 식물이다. 그래서 민들레는 짓밟혀도 죽지 않는 끈질김을 상징한다.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고 자신의 목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합하려고 온 힘을 쏟으며 산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척' 하는 것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삶을 못 살아가고 있다. '~척' 그것은 바로 자신답게 살아야 함에도 타인의 눈치 때문에 자신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 삶의 태도를 꼬집는 말이다. 있는 척, 잘난 척, 아는 척, 멋진 척 등 각종 '~척'을 하면서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영국 출생 캐나다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Malcolm Timothy Gladwell)은 2020년 『타인의 해석』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외모와 태도를 바탕으로 그 사람의 정직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고 있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잘난 척이나 있는 척을 하다 보면 그 '~척'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타인의 눈치만 살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척'만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부지런히 자기 삶을 살며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습관을 길들이는 방법이다. 좋은 습관이 모여야 선한 마음이 생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긍정적(Positive) 사고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수행해가는 자세다. 이는 원효대사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와 통한다.

긍정적인 사고는 열정과 노력을 불러온다. 긍정적인 사람은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운이 좋다고 믿어야 성공이 따라 온다.

낙관적(Optimistic)인 사고는 매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해결하려는 자세이고, 적극적(Aggressive)인 사고는 모든 일을 내 일처럼 열심히 해내려는 자세다. 낙관적이며 적극적인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바대로 자기 인생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어찌다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전개돼도 항상 유머를 잃지 않고 얼굴에 웃음을 띤다. 웃음을 잃지 않으면 인상이 좋아지고 얼굴이 빛나는 느낌을 준다.

얼굴색은 건강 상태를 나타내고, 건강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심리적으로도 걱정이 없다. 만사가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마음이 사람을 따르게 해야지 사람이 마음을 따라가면 선업을 짓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하여 자기 삶에 약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한다.

바른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자신이 할 수 있

전쟁에 대한 단상(斷想)

조관행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우리는 전쟁을 종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인류에게 주는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전쟁을 이해해야 한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전쟁을 줄이거나 억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날마다 뉴스에서 지구상 어디선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 전쟁의 폭력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되는 상황을 접한다. 어쩌면 계속되는 전쟁을 당연한 일상으로 간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뉴스에 나오는 다른 나라에서의 전쟁과 죽음을 보면서 별 감흥 없이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개인의 소소한 일상을 대화로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전쟁의 폭력을 우리와